

시온으로서의 다윗: 세 층위를 가진 시편으로서 시편 51편 읽기

하경택(장신대)

1. 들어가는 말

시편 51편은 루터가 세 번에 걸쳐 해설을 수행할 만큼 그의 신학에서 중요하게 다룬 시편이다. 이 시편을 통해 그가 강조한 신학적 주제는 다윗의 문제만이 아닌 인류 보편의 문제로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 인간’이었다. 그러나 시편 51편은 단순히 다윗의 개인 참회시로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후대의 확장을 보여주는 시편이다.¹ 본래 시편이었

* 이 논문은 2023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1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러한 견해를 피력한다. A. Weiser, 『시편(1)』 (김이곤 옮김), (국제성서주석;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2), 540-541; H.-J. Kraus, *Psalmen 1-63* (BK;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2), 383; Marvin E. Tate, 『시편 51-100』 (손석태 옮김), (WBC; 서울: 솔로몬, 2009), 49, 78; F.-L. Hossfeld/E. Zenger, *Psalmen 51-100* (HThKAT; Freiburg im Breisgau u. a.: Verlag Herder, 2000), 45. 하지만 시편 51편을 통일성 있는 시편으로 보려는 시도들도 있다. 예컨대, William A. Ross, “David’s spiritual walls and conceptual blending in Psalm 51,” *JOT* 43(4) (2019), 607-626; 이미숙, “시편 51편에 대한 통전적 읽기,” 『선교와 신학』 45호 (2018), 263-297.

던 1-19절[한글성경 1-17절]의 시편이 20-21절[한글성경 18-19절]의 확장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지니게 된 것이다. 제2성전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확장은 개인 탄원시에서 공동체 탄원시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확장과 변화에서 발견되는 시편 51편의 신학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시편 51편에 대한 세 단계의 고찰이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는 ‘개인 탄원시’로서의 51편이고, 두 번째 단계는 표제어를 가진 ‘다윗의 시’로서의 시편 51편이며, 세 번째 단계는 ‘공동체 탄원시’로서의 시편 51편이다. 이전의 연구에서 시편 51편이 공동체 시편으로 확장된 것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본 논문에서와 같은 세 단계의 분석은 시도되지 않았다. 이 세 단계는 시편 51편의 형성사뿐 아니라 확장과 재해석의 과정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시편 51편에 대한 세 가지 층위를 보여주는 세 단계의 고찰은 단순히 ‘개인 참회시’로 여기며 시편 51편을 고찰할 때 발견하기 어려운 시편 51편의 신학적 의미와 시편 51편의 활용과 적용에 대한 통찰을 얻게 할 것이다.

2. ‘개인 탄원시’로서의 시편 51편

1) 구조와 장르

시편 51편을 그 자체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표제어가 없는 시편 51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표제어(1-2절)와 후대의 확장으로 평가되는 마지막 연(20-21절)을 제외하면 시편 51편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1. 부름과 청원 1: 죄 용서(3-4절)

www.kci.go.kr

2. 탄식: 죄 고백(5-8절)
3. 청원 2: 죄 용서(9-11절)
4. 청원 3: 새 창조와 갱신(12-14절)
5. 서약: 선포와 찬양(15-17절)
6. 확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18-19절)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시편 51편은 개인 탄원시의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다. 시편 51편은 우선 개인 탄원시로 분류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특별히 병자 시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참회 시편으로 볼 것인가가 큰 쟁점이었다.² ‘죄 고백’의 탄식(5-8절)과 ‘죄 용서’(3-4절; 9-11절)와 ‘새 창조와 갱신’(12-14절)에 대한 청원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관건이었다. 병자 시편으로 보는 입장은 이 시편의 기저에 질병은 죄의 결과라는 사상이 깔려있다고 본다(예컨대, 시 41:5).³ 따라서 죄 용서와 회복은 질병으로부터의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시편 51편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시인의 상황이 분명하지 않다(예컨대, 병자 시편으로 분류되는 시편 38편과 비교해 보라). 시편 51편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화자의 모습은 간접적으로 드러날 뿐이다(예컨대, 10절 ‘꺾으신 뼈’). 오히려 ‘죄 고백’과 ‘죄 용서’에 대한 언급이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새 창조와 갱신’에 대한 청원도 ‘죄 용서’ 이후에 경험하게 될 새로운 존재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점에서 시편 51편은 ‘참회’의 모티브를 가진 개인 탄원시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참조, 시편 130편).⁴

2 장르 분석에 대한 논쟁에 관해서 다음을 참조하라. F.-L. Hossfeld/E. Zenger, *Psalmen 51-100*, 42-44.

3 E. Würthwein, “Bemerkungen zu Psalm 51”, K. Seybold/E. Zenger(Hg.), *Neue Wege der Psalmenforschung* (Freiburg: Herder Verlag, 1995), 381-385.

4 탄원시에 등장하는 탄식의 3대 요소는 ‘대적’, ‘질병’, ‘죄’이며, ‘죄’를 고백하며 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죄용서를 구하는 ‘참회시’는 개인 탄원시의 하위 그룹으로 분류된다.

2) 본문 해설

(1) 부름과 청원 1: 죄 용서(3-4절)

3절 **하나님**, 당신의 인애(רַחֲמֶיךָ)를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יְהַרְחֵם).
당신의 긍휼(חַסְדֶיךָ)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과들(עֲוֹנוֹתַי)을 도말
(塗抹)하소서(מָחַץ)

4절 나의 죄악(יָעוּב)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כִּבְּבֵם),
나의 죄(חַטָּאת)로부터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רַחֵם).

이 단락에서는 야훼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죄 용서에 대한 청원을 한다.⁵ 네 개의 쿨론으로 이 단락은 동의적 평행법을 통해서 죄 용서를 간구한다. ‘자비를 베푸소서’에 이어지는 세 번의 청원은 모두 자신의 죄를 없애 달라는 청원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평행법적 진술 가운데 나타나는 삼중적 진술 기법이다. 3-4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표현이 세 가지, 즉 ‘헤세드’(רַחֲמֶיךָ, 인애/인자), ‘하난’(יְהַרְחֵם, 자비/은혜를 베풀다), ‘라하임’(חַסְדֶיךָ, 긍휼)으로 나타나며, 시인의 죄에 대한 언급도 세 가지 표현, 즉 ‘폐샤’(עֲוֹנוֹתַי, 죄과), ‘아본’(יָעוּב, 죄악), ‘하타트’(חַטָּאת, 죄)로 묘사된다. 이것은 단순한 평행법을 넘어서는 강조를 위한 수사법이다.⁶

H.-J. Kraus, *Psalmen 1-63* (BK; Neukirchen-Vluyn: Neukirchen Verlag, 1972), XLVI; M. Dreytza 외, 『구약성서연구방법론』 (하경택 옮김), (서울: 비블리카아카데미아, 2005), 170; Marvin E. Tate, 『시편 51-100』, 46.

5 시편 51편에 등장하는 ‘엘로힘’(3, 12, 16, 19절)은 이 시편이 시편 42-83편의 ‘엘로힘 시편’ 편집의 영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편집에서는 신명사문자(Tetragrammaton)를 ‘엘로힘’으로 대체한다. 이것은 제사장 문서의 신학적 기획의 결과로 주전 5-4세기 페르시아 시대의 작업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 시기는 20-21절의 확장이 이루어진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엘로힘 시편에 관하여, K. Schmid, 『고대 근동과 구약 문헌사』 (이용중 옮김), (서울: CLC, 2018), 292; 각주 68번.

6 테이트는 세 낱말이 의미하는 바를 자세히 분석하면서도 세 낱말이 중첩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며 보여준다. Marvin E. Tate, 『시편 51-100』,

세 번의 반복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한다. 또한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청원을 시작하는 첫 번째 청원이다. “당신의 인애를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를 통해 시인은 죄 용서와 회복이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에 근거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인의 인식은 ‘탄식-청원’이라는 통상적인 순서가 아니라 ‘청원-탄식’이라는 도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첫 번째 청원이 맨 앞자리에 놓임으로써 시인이 바라고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⁷

(2) 탄식: 죄 고백(5-8절)

- 5절 참으로 내가 내 죄과들(עֲוֹנוֹתַי)을 아오니,
내 죄(חַטָּאתַי)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 6절 당신께, 오직 당신께 내가 죄를 지었으며(יְהוָה אֱלֹהֵינוּ),
내가 당신의 눈에 이 악(רָעָה)을 행하였으므로,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에 당신이 의로우시고(יְהוָה אֱלֹהֵינוּ),
당신께서 판단하실 때에 당신이 순전하실 것입니다(יְהוָה אֱלֹהֵינוּ).
- 7절 보소서, 내가 죄악(יָצָר) 중에서 태어났고,
죄(חַטָּאתַי)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 8절 보소서, 당신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진실(אֱמֶת)을 기뻐하셨으며,
당신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나로 지혜(חֵכְמָה)를 알게 하십니다.

57-59.

7 James L. Mays, 『시편』 (신정균 옮김), (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272-273.

이 단락은 시인의 탄식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개인 탄식시에 탄식은 곤경의 묘사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곤경의 묘사가 ‘죄 고백’으로 대체되어 있다. 시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죄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 시편의 참회 모티브를 분명하게 엿볼 수 있는 요소이다. 이 단락은 네 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5-6전반절과 7-8절, 그리고 그 사이의 6후반절이다. 첫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은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으로 서로 상응을 이룬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나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는 언급은 교회사적으로 ‘원죄설’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들은 ‘원죄설’이 아니라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는 말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숙명적으로 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schicksalhafte Schuldverfallenheit)라는 사실에 대한 통찰이며,⁸ 자기 욕심을 따라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는 것이다.⁹ 이 가운데 “오직 당신께 내가 죄를 지었으며”라는 진술은 이웃에게 지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도리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인식을 보여준다.¹⁰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가 저지른 죄악은 그 어떤 대상에게 보다는도 엄중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께 저지른 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죄 고백’ 중심에 6후반절이 위치해 있다. 문장론의 관점에

8 H.-J. Kraus, *Psalmen 1-63*, 387. 원죄사상에 대한 근거로서 여러 본문들(창 8:21; 욥 14:4; 15:14f; 25:4; 시 143:2; 요 3:6)이 언급되지만, 구약성경은 교회사적인 원죄 사상과는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인간 존재의 뿌리 깊은 죄성을 지적한다. H.-J. Kraus, *Psalmen 1-63*, 387.

9 A. Weiser, 『시편(1)』, 545-546.

10 A. Weiser, 『시편(1)』, 543.

서 보면 6절의 종속절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죄 고백의 의미와 목적을 드러내는 핵심진술이다.¹¹ 이 진술을 통해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의 중요성이다. 시인이 저지른 죄의 의미가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그것의 엄중성이 큰 것처럼, 그러한 죄 용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이 결정적이라는 사실이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의 결과가 하나님 자신에게 미치는 것으로 진술된다.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에 당신이 의로우시고, 당신께서 판단하실 때에 당신이 순전하실 것입니다.”¹²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행위가 시인 자신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도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¹³ 시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은 시인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을 드러낼 것이다.¹⁴ 이것은 ‘죄 고백’이 탄식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죄 고백’은 궁극적으로 ‘죄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지향한다. 이러한 점에서 ‘죄 고백’은 ‘죄 용서’의 필연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죄 용서’를 촉구하는 청원의 의미를 내포한다.

11 6절 후반절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5가지 가능성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F.-L. Hossfeld/E. Zenger, *Psalmen 51-100*, 40-41.

12 칠십인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당신이 말씀하실 때 당신은 의롭게 될 것이며, 당신이 판단 받으실 때 당신은 이기실 것입니다”(ὁπως ἂν δικαιωθῆς ἐν τοῖς λόγοις σου καὶ νικήσῃς ἐν τῶ κρινεσθαί σε).

13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통해 신자들이 의로움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한다는 로마서 3장 23-24절의 진술은 시편 51편 시인의 진술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할 수 있다.

14 요제 크라쇼베츠(Jože Krašovec)는 시 51:6의 진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자기 백성에게 대한 신실함과 한결같은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Jože Krašovec, “Justification of God in His Word in Ps 51:6 and Rom 3:4”, *VT* 64 (2014), 416-433.

(3) 청원 2: 죄 용서(9-11절)

- 9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וַיִּטְהַרֵנִי). 그러면 내가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וַיִּטְהַרֵנִי).
나를 씻기소서(וַיִּטְהַרֵנִי).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
니다(וַיִּטְהַרֵנִי).
- 10절 나로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당신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 11절 나의 죄들(חַטֹּאתַי)로부터 당신의 얼굴을 가리소서(וַיִּסְתֵּר).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들(רָעָה)을 도말하소서(וַיִּמָּח).

이 단락은 다시금 ‘죄 용서’에 대한 명시적인 청원이다. 이 단락은 미시적인 맥락과 거시적인 맥락 두 가지 차원의 고찰이 가능하다. 미시적인 맥락에서는 10절이 중심에 있고 이 구절을 둘러싼 9절과 11절에서 ‘죄 용서’에 대한 청원이 반복된다. 9절에서는 우슬초라는 제의적인 은유 사용과 눈과의 비교를 통해서 정결의 의미가 강조된다.¹⁵ 11절에서 시인은 ‘얼굴 숨김’을 말한다. 이것은 보통 숨어계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관용어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된다. ‘얼굴 숨김’이 시인이 아니라 죄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멀리 계심’이 아니라 ‘가까이 계심’을 보여주는 구원의 표지이다. 이러한 시인의 바람이 11후반절에서 ‘죄를 도말해 달라’는 적극적이며 직접적인 방식의 청원으로 표명된다. 이것은 9절에서 말한 바에 대한 반복이자 강조이다. 이로써 ‘죄 용서’에

15 디프란시코(Lesley DiFrancisco)는 본문상호간 비교연구를 통해 시편 51편의 시인이 ‘씻음 메타포’(washing metaphor)가 나타나는 예언서 본문들(사 1:15-16; 4:4; 렘 2:22; 4:14)로부터 다양한 요소를 추출하여 죄 용서 청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Lesley DiFrancisco, “Identifying Inner-Biblical Allusion through Metaphor: Washing Away Sin in Psalm 51”, *VT* 65 (2015), 556.

대한 청원이 종결된다.

이러한 ‘죄 용서’에 대한 청원은 거시적인 맥락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로, 이 단락은 3-4절의 청원과 대응을 이룬다. 3-4절에 등장했던 ‘마하’(מַחָה), ‘카바스’(כַּבַּסְ), ‘타하르’(טָהַר) 세 동사가 9절과 11절에서 역순으로 반복된다.¹⁶ 이러한 대구와 반복은 시편 51편에서 ‘죄 용서’의 모티프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¹⁷ 둘째로, ‘죄 용서’의 청원은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것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기쁨의 삶을 위한 청원으로 상승된다. 10절에서 시인은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기를 청원한다. 기쁨의 탄성을 외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보이는 대표적인 반응이다. 이러한 변화의 급진성은 시인의 상황을 보여주는 의복 색깔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시인의 청원에는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검고 붉은 빛깔의 옷(참조, 시 35:13 이하; 사 1:18)을 벗어 버리고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는 흰 빛깔의 옷(참조, 속 3:4; 전 9:8)을 입고 외치는 축제

16 이러한 상황을 로스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William A. Ross, “David’s spiritual walls and conceptual blending in Psalm 51”, 620).

v. 3b	‘마하’(מַחָה) Forgiveness
v. 4a	‘카바스’(כַּבַּסְ) Cultic Purification
v. 4b	‘타하르’(טָהַר) Cultic Purification
v. 6b	하나님은 심판에서 정의로우시다
v. 9a	‘타하르’(טָהַר) Cultic Purification
v. 9b	‘카바스’(כַּבַּסְ) Cultic Purification
v. 11b	‘마하’(מַחָה) Forgiveness

17 판 볼데(Ellen Van Wolde, “A Prayer for Purification: Psalm 51:12-14, a Pure Heart and the Verb כָּבַסְ”, VT 70 (2020), 342-343)는 죄에 대한 네 가지 은유(짐, 기록, 얼룩, 길)를 소개하면서 이 가운데 ‘죄용서’의 청원에는 ‘짐’, ‘기록’, ‘얼룩’의 세 가지 은유가 나타나며, ‘길’로서의 죄는 15절의 서약에서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판 볼데가 인용하는 죄에 관한 네 가지 은유에 관해서 다음을 참조하라. J. Lam, *Patterns of Sin in the Hebrew Bible. Metaphor, Culture, and the Making of a Religious Concep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의 환호에 대한 기대가 있다.¹⁸

(4) 청원 3: 새 창조와 갱신(12-14절)

12절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רִהוּט לֵב)을 창조하시고(בָּרָא),
내 안에 올곧은 영(יְכוֹן רוּחַ)을 새롭게 하소서(שִׁחַרְרָה).

13절 나를 당신의 임재(מְלִכְוַתְּךָ)로부터 쫓아내지 마시고,
나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영(רוּחַ קָדְשׁ)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14절 당신의 구원의 즐거움(שִׂמְחַת יְשׁוּעָה)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지원하는 영(רוּחַ נְדִיבָה)으로 나를 불드소서.

이 단락에는 하나님에 대한 ‘부름’이 다시금 나타난다. 여기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이 바라는 바를 주목하게 한다. 12절에서 시인은 새 창조와 갱신을 청원한다. ‘정결한 마음’(רִהוּט לֵב)을 창조하시고 ‘올곧은 영’(יְכוֹן רוּחַ)을 새롭게 해달라고 청원한다. 이 구절은 전형적인 동의적 평행법으로 분석된다. 여기에서 ‘정결한 마음’과 ‘올곧은 영’이 대응을 이루고, ‘바라’(בָּרָא)와 ‘하다쉬’(שִׁחַרְרָה) 동사가 대응을 이룬다.

우선 ‘마음’과 ‘영’이라는 두 명사에 주목해 보자. ‘마음’과 ‘영’은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동의어로 자주 사용된다(예컨대, 겔 36:26).¹⁹ ‘마음’과 ‘영’은 인간의 몸 가운데서 이성적 판단과 삶의 의지를 관장하는 중추기관으로 기능한다. 무엇보다 ‘마음’과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접촉점을 형성하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마음’에 대한 새로운 평가들이 제시되고 있다. 즉 마음은 “외부 세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도 외부세계와 내부세계가 만나는 접촉점이나 경계선”

18 F.-L. Hossfeld/E. Zenger, *Psalmen 51-100*, 52.

19 Marvin E. Tate, 『시편 51-100』, 67-68.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²⁰ 이처럼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외부세계와의 관계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에는 마음과 영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마음과 영의 변화는 새 존재의 시작점이면서 동시에 새 존재로서의 삶에 동력을 제공한다. 12절에 사용된 ‘루아흐’(רוּחַ)는 13절과 14절에서도 반복된다. ‘당신의 거룩한 영’과 ‘자원하는 영’이라고 표현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사람에게 거룩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다.²¹ ‘자원하는 영’은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는 자발적인 마음과 의지를 갖게 한다. 이처럼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되며, 14절에서는 ‘인간의 영’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된다. 이러한 진술들을 통해서 ‘영’이 감당하는 두 가지 기능이 다시금 확인된다. 그것은 하나님과 외부세계와의 접촉점으로서의 영의 기능이고 또한 판단과 의지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영의 기능이다.

다음으로 ‘바라’와 ‘하다쉬’ 동사를 살펴보자. 두 동사가 동의적 평행법으로 쓰였다는 사실은 두 동사가 동의어로 이해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창조’와 ‘갱신’이 의미하는 바가 같다는 것이다.²² 이

20 Van Wolde, “A Prayer for Purification”, 354. 그는 이러한 견해를 펼치면서 다음 세 가지 연구를 소개한다. J. Dietrich, “Individualität im Alten Testament, Alten Ägypten und Alten Orient”, A. Berlejung/J. Dietrich/J. F. Quack(eds.), *Menschenbilder und Körperkonzepte im Alten Israel, in Ägypten und im Alten Orient* (Orientalische Religionen in der Antike 9, Tübingen: Mohr-Siebeck, 2012), 77-96; D. Lambert, “Refreshing Philology: James Barr, Supersessionism, and the State of Biblical Words”, *Biblical Interpretation* 24 (2016), 332-356; E. Greenstein, “The Heart as an Organ of Speech in Biblical Hebrew”, *Semitic, Biblical and Jewish Studies*, Festschrift R.C. Steiner (ed. A. Koller), Yeshiva Univ. Press, Jerusalem 2019.

21 크라우스는 “거룩한 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야훼께 속되었다는 것과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증표이다”(H.-J. Kraus, *Psalmen* 1-63, 389).

22 판 볼테(Van Wolde, “A Prayer for Purification”, 354)는 ‘바라’(בָּרָא)의 의미에 대한 논의에서 “창조”(creation)와 “분리”(separation)의 두 가지 이해가 있음을 소개하며, 12절에서는 “마음의 창조”가 아니라 “마음의 정화”라는 차원에서 ‘바라’가 ‘분리’의 의미로

것은 새로움은 창조이며, 창조는 새로움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특별히 ‘바라’(בָּרָא) 동사는 하나님만을 주어로 취하는 동사이다.²³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새 존재로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창조와 새로움은 다시금 구원과 연결된다. 죄용서는 옛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는 새 창조를 의미하며 구원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성취한다.²⁴ 이러한 시인의 청원을 통해서 구원의 삶이란 무엇인가가 분명해진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는 것이며(13절),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14절)²⁵이다. 이때 하나님은 시인을 새 존재로 만드시는 ‘창조주’이시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는 ‘구원자’이시다.²⁶

이해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창조’와 ‘갱신’을 동의적 평행법 차원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바라’의 의미에 대한 논의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E. van Wolde, “Separation and Creation in Genesis 1 and Psalm 104. A Continuation of the Discussion of the verb בָּרָא”, *VT* 67 (2017), 611-647.

23 H.-J. Kraus, *Psalmen 1-63*, 388.

24 바이저는 이러한 시인의 진술이 거듭남(딤후 3:5 참조)에 대한 구약적 뿌리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A. Weiser, 『시편(I)』, 548.

25 여기에서 구원의 기쁨은 찬양의 회복이라는 삶의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다(아래 15-17 절에 대한 설명을 보라).

26 이 단락에 대해서 쉐어는 시인의 청원(12-14절)이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예언자들의 약속을 개인의 상황에 적용하고 있으며, 결국 시인은 이러한 청원을 통해 “새 언약의 은혜”를 간구한다고 평가한다(F.-L. Hossfeld/E. Zenger, *Psalmen 51-100*, 52-53). 쉐어가 말하는 예언자들의 약속은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죄의 용서(사 43:25; 44:22; 렘 31:31-34), 새 창조와 새로운 것의 창조(사 43:1-23; 특히 43:19), 환호, 기쁨과 즐거움의 설립으로서 포로로부터의 해방(사 35:1, 10; 51:3, 11), 정한 마음과 새 영의 수여(특히 겔 11:14-20의 새로운 해석으로서 겔 36:24-28; 또한 렘 24:7; 31:33 참조), 하나님 자신의 영의 지분 수여(겔 37:1-14) 등. 이러한 해석은 시편 51편과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예언과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해석과 적용에서 ‘공동체의 개인화’ 혹은 ‘개인의 집단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 서약: 선포와 찬양(15-17절)

15절 내가 악행자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칠 것이며(אַלְמָנָה),
죄인들이 당신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16절 피흘림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지여.

내 혀가 당신의 의로움(הַקְּדוּשָׁה)을 노래할 것입니다(תְּהַלֵּל).

17절 **주여**, 당신께서 내 입술을 열어 주시고,

내 입은 당신의 찬양을 선포할 것입니다(תְּבַרֵּךְ).

이 단락은 시인의 서약을 보여준다. 죄 용서에 이은 새 창조와 갱신이 이루어질 때 시인이 할 행동에 대한 서약이다. 이 서약에서도 일반적인 것과 시편 51편만의 특별한 것이 동시에 나타난다. 우선 일반적인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시인이 구원 이후에 보이겠다는 찬양에 대한 서약이다. 찬양의 서약이 중요한 것은 찬양이 구원의 삶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죽음은 찬양의 중단을 의미한다(시 6:5; 또한 참조, 사 38:18; 시 30:9; 88:10-11; 115:7).²⁷ 따라서 찬양의 서약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암시이기도 한 것이다.

시편 51편의 서약에서 특별한 것은 “악행자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칠 것”이라는 언급이다. 이 서약은 시인이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다는 것이며,²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언자’가 되겠다는 의미이다.²⁹ 이러한 일들은 제사장의 직무(레 10:11; 신 33:10)이면서 예언자의 기능이기도 하며(왕하 17:13-14; 호 12:10), 지체의 교사가 감당해야

27 A. Weiser, 『시편(I)』, 550.

28 F.-L. Hossfeld/E. Zenger, *Psalmen 51-100*, 54.

29 A. Weiser, 『시편(I)』, 549.

할 사명(잠 1:2-6)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인의 진술에는 단순히 서약만이 아니라 시인의 확신도 들어있다. 그것은 “죄인들의 돌이킴”이 자신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지혜자들이 잘 해내지 못했던 일이었다는 점에서 이 진술의 특별성을 돋보이게 한다.

또한 16절의 진술도 이 서약에서 주목을 끈다. 여기에서는 서약이 청원과 함께 나타난다. 시인은 다시금 ‘하나님’(אֱלֹהִים)을 부른다. 이때 시인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אֱלֹהֵי תְּשׁוּבָתִי)이라는 호칭을 덧붙인다. 그러면서 “피흘림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피흘림’(דָּמָיִם)은 말 그대로 피를 흘리는 시인의 ‘범죄행동’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어느 한 가지 의미를 고집하기보다는 두 가지 모두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보이겠다고 하는 시인의 반응이다. 이때 시인은 하나님을 ‘주’(יְיָ)라고 부르며 자신이 보일 행동에 대해서 말한다. 이 서약에서 이렇게 다양한 호칭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것(3회)은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의 절박성을 대변한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의로움”(צְדָקָה)을 노래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시인은 ‘공의’와 ‘구원’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구원이 곧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이다.³⁰ 달리 말하면 구원이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신실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³¹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30 폰라트는 이러한 용례를 바탕으로 ‘체다카’가 ‘구원 입증’(Heilsweisung)이라고 말한다 (GvRad, TheolAT I, 370). H.-J. Kraus, *Psalmen 1-63*, 390에서 재인용.

31 ‘하나님의 정의’에 관하여 필자의 줄고를 참조하라. “하나님 닮아가기’(Imitatio Dei)로서의 정의: 시편을 통해서 본 구약성서의 ‘정의’ 신학”, 『장신논단』 48권 2호 (2016년 6월), 37-66.

의를 드러내는 것(6후반절)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인이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분명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다.³²

(6) 확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18-19절)

18절 참으로 당신은 희생제(זָבַח)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번제(עֹלָה)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19절 하나님의 희생제들(זִבְחֵי אֱלֹהִים)은 상한 영(רוּחַ נְשָׁבָרָה)입니다.

하나님, 상하고 부서진 마음(לֵב נִשְׁבָּר וְנִדְבָה)을 당신께서는
멀시치 않으실 것입니다.³³

이 단락은 개인 탄원시의 마지막 단락으로서 시인의 확신을 보여 준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제사는 “상한 영”이며, “상하고 부서진 마음”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시금 ‘영’과 ‘마음’이 동의어로 사용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희생제사나 번제가 아니라 진술은 구약의 경건을 제한하거나 삭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제사대신 순종과 공의를 요구하는 예언자들의 제의비판(호 6:6; 암 5:21-27; 미 6:8)을 실제화하는 것이며,³⁴ 궁극적으로 구약의 “경건을 넓히고 심화시킨다.”³⁵ 하나님의 희생제사가 ‘상한 영’이고 ‘상하고 부서

32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의 주제가 중심 모티브가 된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William A. Ross, “David’s spiritual walls and conceptual blending in Psalm 51”, 622).

33 참조, 시 34:19[18]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לִנְשָׁבְרֵי לֵב)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אֵת דְּבָאֵירֵרוּחַ)를 구원하시는도다.”

34 F.-L. Hossfeld/E. Zenger, *Psalmen 51-100*, 54.

35 A. Weiser, 『시편(I)』, 551.

진 마음'을 떨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인의 확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제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제자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헌제자는 '죄인'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하며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한다. 이때 헌제자는 일종의 “부서진 구조물”로 이해된다. 인간의 공간화(spatialization)이다. 이러한 공간화는 20절 청원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³⁶ 이러한 시인의 확신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올바르고 유익한 시선 교환을 엿볼 수 있다. 헌제자는 자신이나 다른 무엇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제물이 아니라 헌제자의 ‘상하고 부서진’ 마음과 영을 주목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 시편에서 보여주는 ‘예배신학’과 맥을 같이 한다(예컨대, 시 40:7-10; 69:31 이하; 또한 시 34:19). 그렇다고 이러한 예배신학이 희생제사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시편 51편의 예배신학은 바로 앞 시편인 시편 50편에서 “감사의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요구(시 50:14, 23)와 일맥상통한다.³⁷

36 자신을 “부서진 구조물”로 표현하는 시인의 은유 사용은 20절에서 고찰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모티브와 잘 연결된다. 이뿐 아니라 ‘죄와 파괴’의 은유 도식에 대한 ‘용서와 재건’의 은유 도식의 상응관계도 잘 설명된다. 참조, Ellen van Wolde, “A Prayer for Purification”, 358-359; William A Ross, “David’s spiritual walls and conceptual blending in Psalm 51”, 624-626.

37 이러한 이해는 20-21절이 18-19절의 내용과 모순된다고 평가하는 입장과 다르다. 예컨대, M. Marttila, *Collective Reinterpretation in the Psalms: A Study of the Redaction History of the Psalter* (FAT 11/13; Tübingen: Mohr Siebeck, 2006), 158. 하지만 이것은 희생제사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보완이며 예배신학의 재확립의 문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0-21절은 18-19절에 나타난 예배신학의 연속이자 확대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회개의 모티브를 가진 개인 시(3-19절)에서 제의적 모티브를 가진 공동체 시(20-21절)로 바뀌었다는 평가도 너무 단순한 분석이다(William A. Ross, “David’s spiritual walls and conceptual blending in Psalm 51”, 610).

3) 중심내용 요약

첫째, 시인은 죄 용서와 회복이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에 근거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청원(3-4절)을 통해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에 초점을 맞추어 죄 용서를 호소한다.

둘째, 시인은 죄 고백의 탄식(5-8절)을 통해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의 실존과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6후반절의 진술을 통해 시인은 궁극적으로 '죄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지향한다. 하나님의 죄 용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셋째, 죄 용서에 대한 두 번째 청원(9-11절)은 첫 번째 청원(3-4절)과 대구와 반복을 이루며 '죄 용서'의 모티브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기를 청원함으로써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기쁨의 삶을 위한 청원으로 나아간다.

넷째, 세 번째 청원(12-14절)에서는 새 창조와 갱신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영과 마음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외부세계와의 접촉점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판단과 의지의 중추기관으로서 중요하게 부각된다. 이때 창조와 갱신은 동의어로 이해된다. 죄용서는 옛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는 새 창조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 구원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성취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섯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 서약(15-17절)은 일반성과 특별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찬양의 서약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 일반적인 것이지만, "악행자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칠 것"이라는 언급은 시인이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교사'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언자'가 되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또한 하나님의 "의

로움”을 노래할 것이라는 시인의 서약은 하나님의 구원이 곧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여섯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한 확신(18-19절)은 구약의 예배신학을 재정립한다. 제사에 앞서 우선적으로 순종과 공의를 요구하는 예언자들의 제의비판을 실제화하며 구약의 “경건을 넓히고 심화시킨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올바른 유익한 시선 교환을 보여준다.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헌제자의 시선과 헌제자의 ‘상하고 부서진’ 마음과 영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올바른 제사 안에서 교차된다.

이를 통해 ‘죄인’으로서의 인간과 ‘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드러난다. 철저히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실존을 고백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응답하시며 자신의 ‘의’를 행하신다. 이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상하고 부서진’ 인간의 마음과 영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부서진 건물’과 같은 인간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에 의지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시인의 시선과 제물이 아니라 시인의 ‘상하고 부서진’ 마음과 영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교차되는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재건되는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진다.

3. ‘다윗의 시’로서의 51편

1) 시편 51편 안에서

표제와 함께 읽는 시편 51편의 의미는 두 가지 차원에서 고찰이 가능하다. 우선 시편 51편 자체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시편 모음집으로서의 차원에서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많은 사

람들이 지적하듯이 표제어는 시편 이해를 위한 “건축 지시사항”과 같으며 “내러티브의 배경”을 제공한다.³⁸ 시편 표제어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쉬퇴베(H. J. Stoebe)의 말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동체가 이 시를 어떻게 듣고 이해했는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예증(Illustrationen)이며, 그 안에는 믿음의 증언(Glaubenszeugnis)과 첫 번째 주석(erste Auslegung)이 들어있다.”³⁹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시편 표제어는 그 자체로 그 시편에 대한 해석이며, 반대로 그 시편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상황을 보여준다.⁴⁰

그러한 의미에서 시편 51편의 표제어는 시편 51편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상황으로 “그가 밧세바에게 들어간 후 예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를 제시한다. 표제어에 상응하는 사건기록은 사무엘하 12장에 등장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내가 야훼께 범죄하였도다”(וַיִּתְּנֵנִי לְחַטָּאתִי)이다(삼하 12:13). 이것은 “내가 오직 당신께 죄를 지었나이다”(וְעַתָּה חַטָּאתִי לְפָנֶיךָ)는 6절의 진술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약성경에서 자신이 야훼께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본문은 많지 않다. 모세와 아론 앞에서 말하는 바로의 고백(출 9:27; 10:16); 야훼의 사자 앞에서 말하는 발람의 고백(민 22:34); 여호수아 앞에서 말하는 아간의 고백(수 7:20)이 있다. 이 외에 시인의 고백(시 41:5)

38 William A. Ross, “David’s spiritual walls and conceptual blending in Psalm 51”, 615-616. 시편의 표제어에 관한 연구로 다음을 참조하라. B. S. Childs, “Psalm Titles and Midrashic Exegesis”, *JSS* 16 (1971), 137-150; 손세훈, “시편 표제어 첨가에 관한 이해”, 『구약논단』 16권 2호 (2010년), 92-115; 방정열, “시편 표제어 유무에 대한 정경적 해석의 가능성”,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6호 (2017년), 11-37; E. Slomovic,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formation of historical titles in the Book of Psalms”, *ZAW* 91(3) (1979), 350-380.

39 H. J. Stoebe, *BiblStud* 20, 17. H.-J. Kraus, *Psalmen 1-63*, 385쪽에서 재인용.

40 James L. Mays, 『시편』, 272.

과 회중의 고백(미 7:9)이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죄 고백’이 사울과 다윗에게서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보여준 ‘죄 고백’의 의미는 사뭇 다르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두 번(삼상 15:24, 30), 다윗에게 한 번(삼상 26:21)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 이 가운데 다윗에게 말한 것은 다윗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변명(삼상 15:24)과 요구사항(삼상 15:30)을 동반하고 있어 온전한 회개라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다윗의 경우는 인구조사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장면에서 보여주는 반응으로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며(מֵאֵין עֲוֹנוֹתַי,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삼하 24:10; 대상 21:8), 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신이므로 자신의 백성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기를 청원하는 참된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준다(וְאֵינִי הוּא אֲשֶׁר־הִטָּאתִי), “죄를 범한 것은 바로 나입니다”, 삼하 24:17; 대상 21:17). 더 나아가 밋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아이가 병 낫기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삼하 12:15-17)은 ‘상하고 부서진’ 마음과 영을 가진 시편 51편의 화자(19절)와 일치한다.⁴¹

이처럼 사무엘서는 다윗이 시편 51편의 화자가 되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 물론 시편 51편의 진술들은 개인 탄원시로서 다윗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다윗이 밋세바에게 범한 범죄만을 생각할 수 없다. 루터에 따르면 시편 51편은 어느 특정한 범죄사실만이 아니라 ‘근본적 죄’(peccatum radicale)를 다루고 있으며, 하나님 앞

41 참조, E. Slomovic,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formation of historical titles in the Book of Psalms”, 370-371.

에서의 인간, 특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있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준다.⁴² 칼뱅도 시편 51편 주석하면서 시편 51편의 저자를 ‘시인’이라고 말하고, 독자들을 ‘우리’라고 명명하면서 시편 51편의 보편적 의미를 강조한다.⁴³ 그러나 표제어와 ‘함께’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가 된다. 시편 51편이 ‘다윗의 시’로 이해되면서 이 시편의 화자는 ‘다윗’이 된다. 다윗은 이제 범죄한 인간의 대표자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따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있다.

2) 시편집의 구성 안에서

시편 51편의 표제어는 시편집 구성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윗시편(2-42편)이 주를 이루는 1권에 이어 시편 2-3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고라시편	아삽시편	다윗시편	아삽시편	고라시편
42-49편	50편	51-71(72)편	73-83편	84-85편, 87-88편
엘로힘시편				
제2권			제3권	

시편 2-3권은 다윗 시편(51-71(72)편)을 중심에 두고 아삽 시편과 고라 시편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다윗의 시

42 루터의 시편 51편에 대한 이해에 관하여 필자의 줄고를 참조하라. 하경택, “루터와 칼뱅의 성서해석과 그 함의(含意): 시편 51편 해석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50권 2호 (2018년 6월), 11-36. 특히 19쪽.

43 하경택, 윗글, 29-30; James L. Mays, 『시편』, 276.

로 분류되는 시편들 가운데 8개의 시편이 다윗의 생애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표제어를 가지고 있다.⁴⁴ 다윗의 생애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는 시편이 총 13개임을 고려할 때 제2권에 집중적으로 모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제어를 가진 시편의 시작점을 형성하는 것이 시편 51편이다.⁴⁵ 흥미로운 것은 다윗 생애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는 표제어를 가진 시편이 ‘마스길’(시 32, 42, 44, 45, 52, 53, 54, 55, 74, 78, 88, 89, 142편)이나 ‘믹담’(시 16, 56, 57, 58, 59, 60편)이라는 것이다. ‘마스길’과 ‘믹담’ 시편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 시편이 ‘교훈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교훈적 목적은 시편 배열을 역사적 사건의 순서를 고려할 때도 고찰된다. 시편 표제어에 나타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시 52-59편까지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60편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의 일을 언급한다. 이러한 구성을 고려한다면 왕이 된 이후의 다윗의 상황을 보여주는 시편 51편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러한 배열의 특별한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의 순서를 따른 것이 아니라 신학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⁴⁶ 이러한 배열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시편 51편의 표제어는 단순히 시편 51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편집 구성 안에서도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시편 51편이 이후 등장하는 시편을 위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다. 시편의 화자로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시편 51편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죄인’이며(참조, 시 130:3; 143:2),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44 Nancy DeClaissé/R. A. Jacobson/Beth Laneel Tanner, *The Book of Psalms* (NICOT;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4), 453.

45 이러한 시편 배열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시편 63편이며, 그것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다.

46 F.-L. Hossfeld/E. Zenger, *Psalmen 51-100*, 56.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에 의존해야 함을 보여준다.

4. ‘공동체 탄원시’로서의 시편 51편

20절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벽들을 쌓으소서.

21절 그때 당신께서는 의의 희생제들(קָרְבָּנֵי צְדָקָה), 곧 온전한 번제
(עֹלֹתֶיךָ תְּמִימִים)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당신의 제단에서 수송아지들을 번제로 드릴 것
입니다(אֲשֶׁר יִזְבְּחוּ).

위 구절이 후대에 추가되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이 확장을 통해 시편 51편의 성격이 달라진다. 개인 탄원사에서 공동체 탄원시로 시편의 성격이 바뀐다. 다루어지는 주제가 개인의 문제에서 공동체의 문제로 확대된다.⁴⁷ 탄원시의 양식 분류를 따르면 ‘시온의 회복’에 대한 청원과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절은 청원이고, 21절은 시인의 확신이다.

우선 시인은 20절에서 시온에 선을 행하고 예루살렘 성벽 쌓기를 청원한다. 이것도 시편 51편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 동의적 평행법에 의해 표현된다. ‘시온’과 ‘예루살렘’이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과 성벽들을 쌓는 것이 동의적 표현으로 등장한다. 여기에서 이 단락의 확장에서 시인이 의도하는 지향점이 분명해진다. 이제 청원의 대상이 어

47 마르틸라(M. Marttila, *Collective Reinterpretation in the Psalms* 64, 78-81)에 의하면, 공동체적 시편 해석은 왕정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나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왕정의 몰락과 함께 개인 왕과 관련된 진술이 공동체적으로 확장 또는 재해석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참조, K. Schmid, 『고대 근동과 구약 문헌사』(이용중 옮김), (서울: CLC, 2018), 223.

면 개인이 아니라 시온, 즉 예루살렘이다. 시인의 청원이 개인에서 공동체 차원의 문제로 바뀔 뿐만 아니라 인간론적 차원에서 도시-공간적 차원으로 바뀐다. 이때 무너지고 깨진 성벽을 가진 “시온/예루살렘”의 모습은 “상한 영”과 “상하고 부서진 마음”을 가진 인간의 모습(19절)과 연결점을 갖는다. 부서지고 깨진 한 건물의 모습이 파괴되고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으로 확장된다. 이처럼 개인 영역에서 공동체 영역으로 확장된 청원의 의미는 인간의 공간화의 은유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제 하나님은 ‘건축자’로 이해되고 촉구된다. 하나님은 파괴된 건물을 보수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는 ‘건축자’이시다.⁴⁸ ‘선을 행하는 것’과 ‘성벽을 쌓는 것’이 동의어로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이 청원의 배경에는 성벽 건축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⁴⁹

이러한 확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시온/예루살렘이 개인(다윗)과 동일시된다는 사실이다. 개인 탄원시가 공동체 탄원시로 변모하며, 시온의 문제가 개인(다윗) 문제의 연장선 속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이해를 따르면 다윗은 시온의 ‘화신’(化身)이다. 반대로 이것은 다윗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시온에게 유비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시온의 ‘다윗화’(Davidization)라고 말할 수 있겠다.⁵⁰

그러면 21절에서 시인이 확신하는 바는 무엇인가? 전반절에서 시

48 로스는 개념적 혼합이론을 활용한 시편 51편 연구에서 “손상된 구조물로서의 다윗”과 그것을 재건하시는 “건축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에리하게 분석해낸다. William A. Ross, “David’s spiritual walls and conceptual blending in Psalm 51”, 622-623.

49 따라서 이 청원의 배경에는 느헤미야의 성벽 건설 상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시온에서 두려움 제사를 언급하는 것(21절)이 아직 성전이 개건되지 않은 상황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여 학개와 스가랴와 동시대 사람이 이 확장을 주도했다고 말할 수 있다(A. Weiser, 『시편(I)』, 552).

50 William A. Ross, “David’s spiritual walls and conceptual blending in Psalm 51”, 625-626.

인은 성벽이 재건되고 새로워진 시온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가 드려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의의 제사’(זְבִיחַ יְדִיָּה)이다. 시인은 이것을 ‘온전한 번제’(עֹלָה וְקָלִיל)라고 부연설명한다. 이 의의 제사는 제의규정에 맞는 올바른 제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의의 제사’를 의미한다.⁵¹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제사이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 제의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차원에서도 조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생활 가운데 삶으로 이루어지는 의의 제사를 포함한다(참조, 시 4:5; 신 33:19; 또한 롬 12:1-2). 후반절에서 시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수송아지들을 번제로 드릴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의의 제사가 희생제사를 폐지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의가 의의 제사와 제단에서 드리는 희생제사가 동등한 차원의 의미로 이해된다. 이러한 제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단이 수축되어 있어야 한다. 외벽으로서 성벽 건축은 시온/예루살렘 중심에 놓여 있는 제단 수축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제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접촉점 역할을 하는 영과 마음을 형상화한다. 다시금 개인과 시온의 유비가 고찰된다. 무너지고 훼손된 제단이 수축되어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시온의 회복은 ‘상하고 부서진’ 영과 마음을 가진 시인 ‘다윗’의 회복을 형상화한다. 이처럼 시인 ‘다윗’의 회복은 시온의 회복을 선취하며, 시온의 회복을 위한 모델이 된다.

51 F.-L. Hossfeld/E. Zenger, *Psalmen 51-100*, 42. 이것은 시 42-83편에 이르는 엘로힘 시편의 편집의 관점에서도 고찰이 가능하다. 쉐어는 ‘의의 제사’(זְבִיחַ יְדִיָּה)가 시편 50편의 ‘감사의 제사’(זְבִיחַ תּוֹרָה)(14, 23절)와 연관되면서 20-21절을 확장시켰던 것과 동일한 손길에 의해서 시편 50편이 시편 51편 앞에 놓인 것으로 평가한다. F.-L. Hossfeld/E. Zenger, *Psalmen 51-100*, 57.

5. 세 가지 층위를 가진 시편으로서 시편 51편

시편 51편은 시편 읽기의 세 가지 층위를 보여준다. ‘개인 탄원시’로서의 시편 51편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죄인’ 인간의 모습이 부각된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에 의지해서 죄 용서를 구하고, 영과 마음의 새 창조와 갱신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청원한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부서진 건물’과 같은 인간의 영과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건되는 하나님의 새 창조로 이해된다. 그러나 표제어를 동반한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가 된다. 이때 이 시편의 화자는 ‘다윗’이 되며, 다윗은 이제 범죄한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표제어를 동반한 시편 51편은 시편집의 구성 안에서 도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시편 51편이 이후 등장하는 다윗 시편을 위한 기준점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인 시편으로서 시편 51편의 의미는 20-21절의 확장을 통해서 ‘공동체 탄원시’로 변화한다. 이러한 확장을 통해서 개인 화자인 ‘다윗’이 ‘시온/예루살렘’과 동일시된다. 이러한 이해를 따르면 ‘다윗’은 시온의 ‘화신’(化身)이다. ‘다윗’의 회복은 시온의 회복을 선취하며, 시온의 회복을 위한 모델이 된다. 반대로, 시온은 다윗이 되고, 시온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은 모두 다윗의 지위를 얻는다(슥 12:8). 시온의 ‘다윗화’이다.

이러한 세 가지 층을 가진 시편 51편에 대한 고찰은 독자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의미가 있다. 먼저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를 가진 시편 51편을 읽을 때 독자들은 다윗의 목소리를 갖는다. 이때 모든 독자들은 ‘다윗화’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⁵² 개인 탄원시였던 시편 51편이 표제어를 가짐으로 ‘다윗의 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패러

52 W. P. Brown, 『시편』 (하경택 옮김), (IBT: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156-157.

다임은 다윗의 시가 공동체시로 확장되는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다윗이 시온과 동일시되며, 다윗이 시온의 ‘화신’으로 이해되는 것은 모든 독자가 다윗이며, 그가 속한 공동체 또한 다윗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다윗은 과거의 역사적 인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시편의 화자로서 시인의 전형이 되며, 시편 독자들의 모범이 된다.

6. 나가는 말

시편 51편에 대한 세 차원의 해석은 그 자체로 시편 51편의 형성사뿐 아니라 해석사를 보여준다. ‘개인 탄원시’에서 ‘다윗의 시’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공동체 탄원시’로의 성장과 변화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온의 ‘화신’으로서 다윗의 의미와 시온의 ‘다윗화’라는 공동체적 이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시편에서는 상하고 부서진 ‘손상된 구조물’로서의 시인이 그것을 보수하시고 재건하시는 ‘건축가’로서의 하나님을 갈망하며 탄식하고 청원하고 서약한다. 이러한 갈망과 탄식, 청원과 서약이 있는 곳이 예배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다. 시편은 51편은 모두가 다윗이 되어 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독자들을 초대한다. 이 초대에 응한 독자들은 시편 51편을 읽을 때 갈망과 탄식과 청원과 서약 가운데 예배자가 된다. 그들은 모두 다윗과 시온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이다.

참고문헌

- 방정열, “시편 표제어 유무에 대한 정경적 해석의 가능성”,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6호 (2017년), 11-37.
- 손세훈, “시편 표제어 첨가에 관한 이해”, 『구약논단』 16권 2호 (2010년), 92-115.
- 이미숙, “시편 51편에 대한 통전적 읽기”, 『선교와 신학』 45호 (2018년), 263-297.
- 하경택, “루터와 칼뱅의 성서해석과 그 함의(含意): 시편 51편 해석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50권 2호 (2018년 6월), 11-36.
- Brown, W. P., 『시편』 (하경택 옮김), (IBT;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 Childs, B. S., “Psalm Titles and Midrashic Exegesis”, *JSS* 16 (1971), 137-150.
- DeClaissé, Nancy/Jacobson, R. A./Tanner, Beth Laneel, *The Book of Psalms* (NICOT;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4).
- Dietrich, J., “Individualität im Alten Testament, Alten Ägypten und Alten Orient”, A. Berlejung/J. Dietrich/J. F. Quack(eds.), *Menschenbilder und Körperkonzepte im Alten Israel, in Ägypten und im Alten Orient* (Orientalische Religionen in der Antike 9; Tübingen: Mohr-Siebeck, 2012), 77-96.
- DiFrancisco, L., “Identifying Inner-Biblical Allusion through Metaphor: Washing Away Sin in Psalm 51”, *VT* 65 (2015), 542-557.
- Dreytza, M. 외, 『구약성서연구 방법론』 (하경택 옮김), (서울: 비블리카아카데미아, 2005).
- Greenstein, E., “The Heart as an Organ of Speech in Biblical Hebrew”, Festschrift R. C. Steiner(ed. A. Koller), *Semitic, Biblical and Jewish Studies* (Yeshiva Univ. Press, Jerusalem 2019).
- Hossfeld, F.-L./Zenger, E., *Psalmen 51-100* (HThKAT; Freiburg im Breisgau u. a.: Verlag Herder, 2000).
- Krašovec, Jože, “Justification of God in His Word in Ps 51:6 and Rom 3:4”, *VT* 64 (2014), 416-433.
- Kraus, H.-J., *Psalmen 1-63* (BK;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2).
- Lam, J., *Patterns of Sin in the Hebrew Bible. Metaphor, Culture, and the Making of a Religious Concep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 Lambert, D., “Refreshing Philology: James Barr, Supersessionism, and the State of Biblical Words”, *Biblical Interpretation* 24 (2016), 332-356.
- Marttila, M., *Collective Reinterpretation in the Psalms: A Study of the Redaction History of the Psalter* (FAT 11/13; Tübingen: Mohr Siebeck, 2006).

- Mays, James L., 『시편』 (신정균 옮김), (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 Ross, William A., “David’s spiritual walls and conceptual blending in Psalm 51”, *JSOT* 43(4) (2019), 607-626.
- Schmid, K., 『고대 근동과 구약 문헌사』 (이용중 옮김), (서울: CLC, 2018).
- Slomovic, E.,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formation of historical titles in the Book of Psalms”, *ZAW* 91(3) (1979), 350-380.
- Tate, Marvin E., 『시편 51-100』 (손석태 옮김), (WBC; 서울: 솔로몬, 2009).
- Van Wolde, Ellen, “A Prayer for Purification: Psalm 51:12-14, a Pure Heart and the Verb arb”, *VT* 70 (2020), 340-360.
- _____, “Separation and Creation in Genesis 1 and Psalm 104, A Continuation of the Discussion of the verb arb”, *VT* 67 (2017), 611-647.
- Weiser, A., 『시편(I)』 (김이곤 옮김), (국제성서주석;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2).
- Würthwein, E., “Bemerkungen zu Psalm 51”, Seybold, K./Zenger, E.(Hg.), *Neue Wege der Psalmenforschung* (Freiburg: Herder Verlag, 1995), 381-388.

검색어

시온으로서의 다윗, 다윗화, 죄용서와 회복, 새창조와 갱신, 개인 탄원시, 공동체 탄원시로의 확장

[ABSTRACT]

David as Zion: A Reading Psalm 51 as a Three-Tiered Psalm

Kyung-Taek Ha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three-dimensional interpretation of Psalm 51 in itself shows not only the formation history of Psalm 51 but also the history of interpretation. We can get a glimpse of the process of growth and change from ‘individual lament’ to ‘a psalm of David’ and ultimately to ‘communal lament.’ In this process, we discover the meaning of David as the ‘incarnation’ of Zion and the communal understanding of Zion’s ‘Davidization.’ In Psalm 51, the poet, as a damaged and broken ‘structure,’ longing for God as an ‘architect’ who repairs and rebuilds it, laments, petitions, and pledges.

key words

David as Zion, Davidification, Forgiveness of sins and restoration,
New creation and renewal, Individual lament,
Extension into communal lament

투고일: 2023년 10월 14일

심사일: 2023년 10월 28일

게재 확정일: 2023년 11월 02일

www.kci.go.kr